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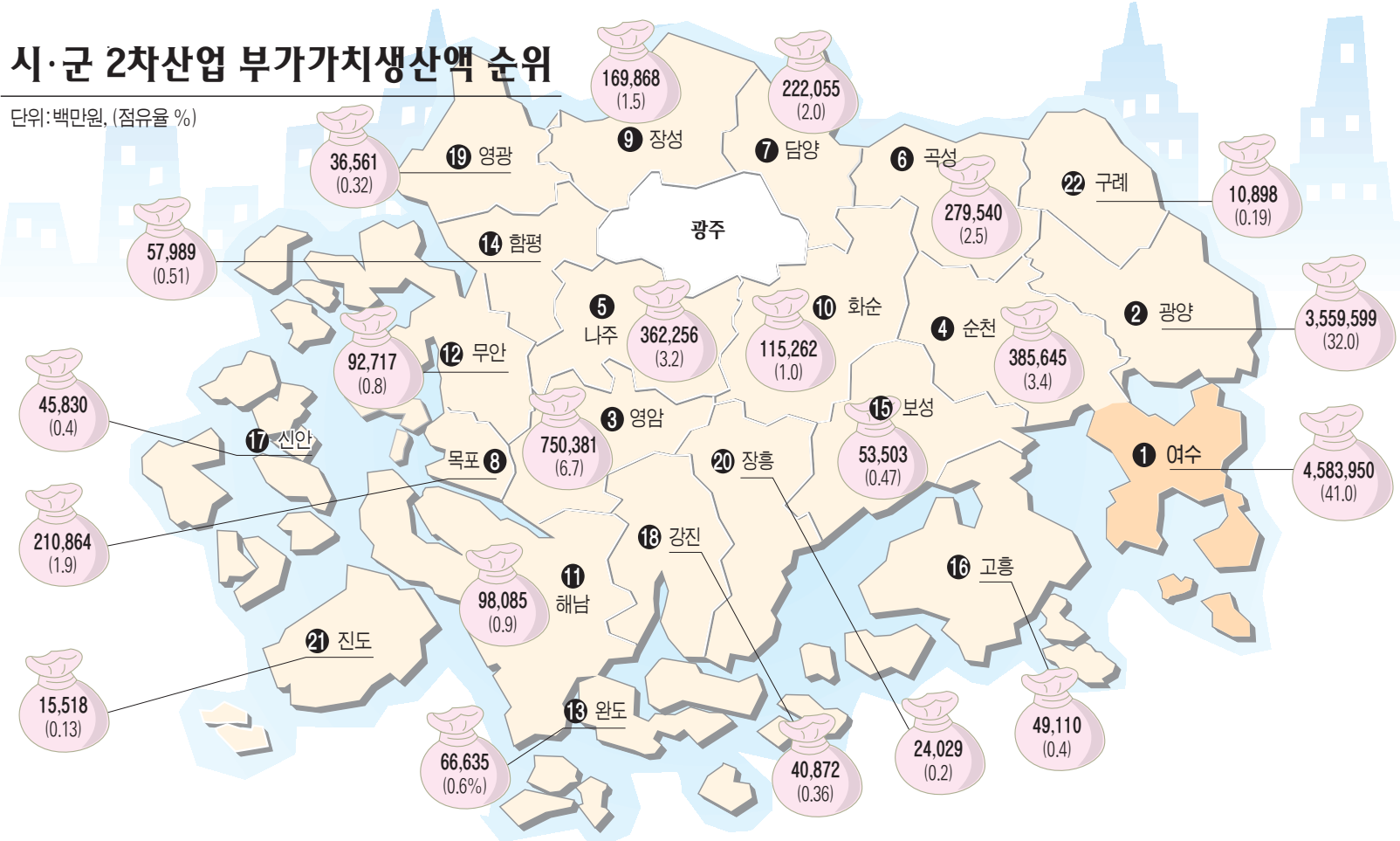
전남 富의 지도

여수·광양지역에 73% 몰려 '東富西貧'

<동부서빈>

시·군 2차산업 부가가치생산액 순위

단위:백만원, (점유율 %)



제조업체 부가가치 창출 영암군 郡지역중 1위 재정력 지수 1위 광양시 예산 절반 자체 조달 동·중남·서남부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필요

전남지역 부의 편재 현상은 심각했다. 전남도내 제조업체의 부가가치를 평가한 결과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이 있는 여수시와 광양시가 전남도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7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의 경우 영암군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대불산단이 활성화되고 생산력이 늘어남에 따라 것이다. 광주 삼성전자로 인해 하청업체가 몰리면서 전남 북부 장성군도 새로운 개발 수요 지역으로 떠올랐다.

시·군 재정의 건전성을 말해주는 재정지수는 전남도 시·군 전체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시·군간 차이는 컸다. 광양제철과 여수산단, 영광원전 등 대규모 선도기업이 있는 지역의 재정지수는 건전했다. 그러나 낙도를 끼고 있는 신안군을 비롯, 대다수 시·군의 재정 상태는 최악이었다.

본지는 지역별 부의 척도를 가늠하기 위해 정부의 '2003년 기준 산업총조사 통계' 중에서도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보여주는 광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재정 상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지수를 대상으로 했다.

◇부의 동부권 편중현상=광업, 제조업 등 2차산업 지역별 부가가치 창출액에 따라 만들어진 전남지역 부의 지도는 확연한 '동부서빈' 현상이다.

2003년 전남도내의 총업원 1인 이상 1만 592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전산업체가 생산한 총 부가가치는 11조 2천311억 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하액은 41조 7천480억 3천900만원이고 유형자산(건설중 제외)은 17조 4천746억 9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수시의 부가가치액이 4조 5천839억 5천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1%를 차지, 22개 시군에서 가장 부자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양시가 3조 5천595억 9천900만원으로 32%를 점유했다. 여수와 광양 두 곳이 전남전체 2차 산업 부가가치 창출액의 73%나 차지하는 편중현상을 보였다.

여수의 부가가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여수산업단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광양의 생산력이 높은 것은 지역 대표기업 광양제철의 공헌도 때문이다.

군 단위에서는 영암이 단연 돋보였다. 영암군의 2003년 부가가치는 7천503억 8천100만원으로 5년 전 3천751억 400만원보다 두 배이상 증가했다. 22개 시·군 전체 부가가치액 중에서 영암군 점유율은 6.7%. 군 지역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시 단위인 목포(1.9%), 순천(3.4%), 나주(3.2%) 등을 웃돌며 여수, 광양에 이어 전체 3위에 랭크됐다.

또 영암은 17개 군지역 전체 부가가치액 2조 3천 186억 3천300만원의 32%에 해당하는 액수를 생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암군 혼자 전남도내 군지역 전체 3분의 1에 가까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최근 대불산단이 활성화되고 대규모 조선소가 가동 중인 영암군의 생산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와함께 최근 삼성 등 대기업 하청업체 증가로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장성군의 부가가치액이 1천698억 6천800만원으로 군 단위에서 영암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점유율은 1.5%. 내륙 산악지대로 가장 적은 171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구례군이 전체의 0.09%를 차지해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재정력 지수=지역의 생산력은 시·군 재정운용 능력과 직결된다. 지역의 생산력이 높아야 세금을 많

이 내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향상되는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

2006년 전남도내 시·군 재정력 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는 광양시가 0.4972로 가장 높았다. 광양시는 올해 필요한 기준예산수요액 1천698억 900만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44억 2천200만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시·군 평균 재정력지수 0.2300의 두 배를 웃돈 수치다. 광양시의 2006년 재정자립도는 48.7%로 역시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양호했다.

두 번째 높은 재정력지수를 보인 곳은 0.4143의 여수시. 여수시는 기준재정수요액 3천134억 5천800만원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천298억 7천300만원을 자체조달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 지역 재정력지수에서는 영광군이 0.3203으로

영암(0.1839)을 제쳤다. 올해 영광군의 기준재정수요액은 1천267억 3천800만원인데 비해 올해 신설된 원전세 150억원 덕분에 405억 9천만원의 수입이 가능하다.

군 지역에서 재정력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신안. 기본적으로 1천391억원이 필요하지만 자체조달 가능액은 101억원에 그쳐 재정력지수는 0.0730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군 지역 재정자립도가 가장 떨어지는 곳은 강진으로 7.8%에 머물러 군 평균 11.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 시급=최근 전남 서남권의 영암군의 산업활성화가 눈에 띄지만 동부권에 부가 몰려 있는 전체적인 틀이 바뀐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남도내 산업편중현상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동부·중남부·서남권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개발과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동부권에 지역산업기반이 치중돼 있는 만큼 이미 계획되어 있는 권역별 전략산업을 구체화해 생산력의 조화를 이루는 게 급선무다.

이에 따라 서남권의 영암·해남에서 추진 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건설 및 무안기업도시 활성화를 통해 동서지역의 산업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 중남부권은 나주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발판으로 특성화사업을 추진해 타 권역과의 병행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북경기자 unpark@kwangju.co.kr

2006 전남·시군 재정력 지수 (단위:백만원,%)

Table with 5 columns: 단체별,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액 (A), 기준재정수입액 (B), 재정자립도. Lists data for various cities and counties in Jeonnam.

전남시·군 2차산업 주요지표 (종업원 1명당 사업체별)

Table with 5 columns: 시군, 사업체수, 출하액, 부가가치, 유형자산. Provides detailed economic indicators for each city and county in Jeonnam.

